

세계인이 찾는 전남...K-관광 선도 대표축제 10개 선정

목포 항구축제·고흥 유자축제 등 지역민 참여형...지역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관광객 편의 증진 노력

전남도가 도내에서 열리는 축제 가운데 최우수 축제인 목포 항구축제를 선정했다. 이외에도 지역 우수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군 10개 축제를 '2025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했다.

2025년 전남도 대표축제는 2024년 축제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평가 점수(50%)와 전남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 발표평가 점수(50%)를 종합해 결정했다.

우수 축제는 고흥 유자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선정됐다. 유랑축제로는 순천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 광양 매화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해남 미남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이름을 올렸다.

목포 항구축제는 2006년에 시작된 지역의 고유한 해상 어시장 문화인 '파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대표 항구축제다. 특히 제철 해산물을 활용한 목포의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민의 축제 참여율을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시대를 반영한 축제장 구성으로 특색있는 콘텐츠와 목포 항구축제만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 문체부에서 발표한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에 신규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 축제로 선정된 '고흥 유자축제'는 기존 축제가 축제 행사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고흥 주민과 고흥군이 직접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성했다는 점과 지역 특산물인 유자의 홍보와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대곡 송크란과 축제교류를 통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한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글로벌 워터월드, 글로벌 샬스대첩 퍼레이드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만족도 높은 콘텐츠를 운영한 점

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제45회를 맞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군민, 관광객이 참여하는 신비의바다라는 야간 바닷길 핫플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축제 기간 외에도 바닷길이 열리는 기간에는 군에서 직접 안전 관리를 하는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것도 큰 점수를 얻었다.

전남도는 이번에 대표축제로 선정된 10개 축제에 대해 각각 최우수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유망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전문가 컨설팅과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축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 "지역민이 주인공의식을 갖고 함께 기획·운영한 축제들이 대표축제로 선정됐다"며 "경제위기 속 관광산업 분야가 많이 침체해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세계인이 찾는 전남을 만들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목포 항구축제를 비롯해 고흥 유자축제, 장흥 물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10개 축제를 2025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목포 항구축제를 찾은 관람객들. <전남도 제공>

무등산국립공원·ACC, '한국관광 100선' 뽑혔다

무등산 6차례 선정 대표관광지로 인증샷·스페셜 여행 후기 등 진행

광주 대표 관광지인 무등산국립공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뽑혔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국내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홍보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7회째를 맞는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의 대표성, 매력, 성장가능성 등을 서면평가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2년마다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이번이 '한국관광 100선' 6회째 선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문화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광주의 명소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등산 코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등산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건축물과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함께 광주의 문화적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 기념해 '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에는 한국관광 100선을 담은 '여행자 여권'을 출시하고 전국 현장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도 운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정식 출범

국토부, 사고 유가족 지원 전담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사고 당일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유가족 지원 등 업무를 이어받았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광주·전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

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맡았다.

박 단장은 "그간 사고 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면서 "유가족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160개 사회적경제기업에 27억 지원

재정지원사업 공모...일자리 창출·사업 개발비 등 4개 사업

전남도가 160여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모두 27억원을 지원한다. 2월 4일까지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 사·군 지역 특화사업 지원, 시설장비 지원,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 '확실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올해부터 2025년부터 중단한 가운데 전남도가 지방비 10억원을 투입해 '전남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진입 초기 지역 사회적기업에 대

상으로 기업당 5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는 최대 50%, 일반근로자는 30%까지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품질 개선,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홍보비 등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시설장비 사업은 기업이 신규 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노후 시설장비 교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사·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판로 개척, 인지도 제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등 사·군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에 있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원하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지정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이 포함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침체와 정부정책 전환에 따라 재정지원 축소 등 지원체계 변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가치를 지속해서 창출하도록 기업의 자립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QR code and text: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주시, 불법경작 훼손 '월산근린공원' 복원

환경부, 8800㎡에 4.5억원 투입 생물 서식처·탐방로·쉼터 등 조성

불법 경작과 점용 행위로 훼손됐던 월산근린공원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남구 월산동 월산근린공원에 생물서식처 복원과 생태탐방로, 생태쉼터 조성사업을 마치고 준공했다.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월산근린공원 생물서식처 연결을 위한 도시소생태계 복원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것으로, 지난 8월 착공해 5개월 간의 공사 끝에 마무리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훼손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월산근린공원은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탓

에 장기간 불법경작과 불법시설물 등으로 인해 식생 훼손과 생물이동로 단절 등이 심각한 상태였다.

광주시는 월산근린공원 내 훼손지 8800㎡를 복원하고, 동식물 서식처와 먹이 공급지를 확보해 지형 등 생태환경을 개선했다. 또 생태탐방로와 생태쉼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생태 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발산근린공원 등 12개소(27만6161㎡)에 98억원을 들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남구 방림근린공원 8200㎡에 4억3000만원을 들여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오숙 광주시 자연보전과장은 "도심 내 훼손·방치된 지역의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생태환경과 대차차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hinhyup (신협) with text: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onnam Shinhyup (전남신협) with text: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Advertisement for Sangsokhyup (상속한정승인공고) with text: 상속인: 망 김희영(740804-2XXXXXX) and details of the public notice.